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Big4와 Non-Big4 회계법인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n-audit Service and Audit Quality: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Big4 and Non-Big4 Audit Firm

임형주

극동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Hyoung-Joo Lim(limhj@kdu.ac.kr)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 회계법인과 Non-Big4 회계법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Big4와 Non-Big4 사이에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감사보수는 Non-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는 기업들의 감사품질과만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업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소형회계법인들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을 수 있고 따라서 비감사보수가 커질수록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ig4 회계법인의 경우 비감사보수가 재량적 발생액 절댓값과 음(-)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비감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비감사서비스 | 감사품질 | 재량적 발생액 | Big4 회계법인 | Non-Big4 회계법인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using a sample of firms in which audit services and non-audit services are provided by a same audit firm. This study extends previous studies by separating auditors into Big4 and Non-Big4 audit firms as each group may have different incentives to impair their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udit quality, proxied by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ha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non-audit service fee for Non-Big4 audit firms, but not for Big4 audit firms, suggesting that Non-Big4 audit firms may impair their independence with increased non-audit service fees. Non-Big4 audit firms are known to be relatively small and local firms that might be highly economically dependent upon a specific client firm whereas Big4 audit firms are not. This results may be of interest to regulators and capital market investors and standard setters who concern a recent trend of increasing non-audit services that are provided by an audit firm which also provides audit service at the same time.

■ keyword : | Non-audit Service | Audit Quality | Discretionary Accruals | Big4 Audit Firms | Non-Big4 Audit Firms |

I. 서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역대 분석회계사태들을 살펴보면 피감사기업이 감사인과 결탁하여 이익을 조작하고 감사인이 이를 묵인해준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2001년 발생한 회계의 회계부정사건인 엔론사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전 세계에 전해주었다. 미국 5대 회계 법인에 속해 있던 아서 앤더슨은 천문학적인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고 철저히 분석된 엔론의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¹⁾. 이는 감사인이 전문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경제적 유인 등으로 인해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002년 미국에서는 엔론을 비롯한 대형회계부정사태들을 계기로 SOA(Sarbanes Oxley act)를 입법화 하고 감사인이 감사하는 피감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 동기간에 학계에서는 감사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의 동시제공이 감사인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엔론에서 보여지듯이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제공은 감사인과 피감사법인의 유착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고 또 감사인 입장에서는 비감사서비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감사보수를 낮게 측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낮은 감사품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으면서 높은 비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감사품질이 낮은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지만 표본을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으로 구분하여 비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는 실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은 1999년부터 2001년 상장기업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의 추가분석에서는 Big5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Big5와 Non-Big5의 비교를 시도한 바 있으나 비감사서비스와 Big5의 교차항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형회계법인에 비해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유의수준이 매우 낮아서 큰 의미를 찾지 못했다. [2]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발생액의 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Big4 회계법인 표본에서는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제공이 발생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Non-Big4 회계법인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은 Propensity matching을 이용하여 Big4와 Non-Big4 회계법인 그룹을 분류하여 두 그룹 간에 재량적 발생액과 보수주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비감사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았다. [4]는 Big4/Non-Big4 회계법인의 분류가 아닌 비감사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여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제공이 감사품질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지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형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들은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감사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표본을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의 경우는 단순히 더미변수를 추가분석에서 통제하였으나 큰 의미를 찾지 못하였음은 물론 본 연구와 상반된 부호가 나타났고, [2]에서는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을 구분하였으나 Non-Big4 회계법인의 경우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Non-Big4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병행제공할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며 Non-Big4 회계법인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와의 결과 차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감사보수를 사용한 상이한 표본과 상이한

1) 아서앤더슨은 16년간 엔론에 감사서비스 및 비감사서비스(컨설팅)를 제공하며 긴 유착관계를 유지했다. 엔론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0년 아서앤더슨의 총 보수는 5천 2백만 달러였고, 이중 비감사보수가 2천 7백만 달러였다.

표 1.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

감사품질 = f(회계오류의 탐지가능성, 발견한 오류를 정직하게 보고할 가능성)			
탐지가능성(전문성)	대리변수	상관관계	선행연구
감사인 노력 감사인 능력 감사인 전문성	감사시간 Big4 계속감사기간	↓	[8] [9] [10]
정직한 보고 가능성(독립성)	대리변수	상관관계	선행연구
유착관계 유착관계 명성보호 유착관계	감사보수 비감사보수 피감사인 규모 계속감사기간	↓	[11] [7] [12] [13]

감사품질 대응치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과 [4]는 각각 비감사보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의 분류가 아닌 시장점유율 분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형설정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가지 재량적 발생액 모형을 통한 감사품질 측정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단일 측정치를 사용할 경우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사전에 차단한 시도이다. 셋째 비감사보수와 더불어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을 주 관심변수로 병행 사용함으로써 총 감사보수 중 비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는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여부가 감사인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과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478개사가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지출한 비감사보수 평균금액이 총 감사보수의 50%를 초과한다고 발표하였다[5].²⁾ 비감사서비스는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기업환경을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감사품을 증가시킨다는 의견과

(감사인 전문성가설)³⁾, 피감사기업과 감사인의 유착관계 형성을 도와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의견(감사인 방호가설)이 병존한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이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탐지할 가능성과 탐지한 오류를 정직하게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6].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는 감사인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감사인 노력, 감사인 능력, 감사인 전문성)와 감사인의 독립성(유착관계, 명성보호)에 관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비감사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동일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7]은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고이익이 분석가 예측치를 소폭 초과하거나 달성하고,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14]는 미국 S&P 500 표본기업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비감사보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익상향조정(income-increasing accrual management)과 총 발생액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비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15]는 비감사서비스의 종류를 SOX에 따라 세분화하고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감사인 독립성을 훼손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감사품을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는 재무제표 제작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16]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증가가 재량적 발생액과 미래수

2) 2002 SOX의 영향으로 2003년 12월에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2항은 감사와 동시에 제공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에 가까운 기업이 동일감사인으로부터 동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3) 외부감사인은 경영자의 기업경영능력, 정치적 환경, 기업의 역사와 같은 피감사기업의 환경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17].

익성의 관련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높은 비감사서비스 수준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고 보고하였다. [18] 역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술한 연구들은 모두 감사인 방호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들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 독립성을 저해시키고 결과적으로 낮은 감사품질을 견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된 바 있다. 먼저 [19]는 비감사보수가 총 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을 관심변수로 설정하고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감사의견 표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감사보수 비율은 독립성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비감사보수에 비해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감사인이 독립성을 훼손하며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독립성 훼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위험, 명성의 저해, 규제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등의 비용이 더 큰 것에 기인한 것 일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0]은 미국과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비감사보수, 재량적 발생액이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는 상호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고,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보수와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한편 비감사보수와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을 오히려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연구로 감사인 전문성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국내에서도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21]은 동일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가 피감사기업에게 병행 제공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고 동시 서비스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그룹 간에 유의한 감사품질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동시서비스를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22]는 감사의견을 감사품질 대응치로 사용하여 비감사보수가 총 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비감사서비스 비율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은 수정Jones모형으로부터 도출한 재량적 발생액과 비감사서비스(금액, 제공여부)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세무조정 이외의 서비스는 감사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24]와 [25]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각각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비정상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비감사서비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26] 역시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의 비유리적 관련성을 근거로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상술한 연구결과들은 앞서 논의한 감사인 방호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와는 반대된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과 논의를 근거로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부호를 예측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비감사보수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대형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들로부터 감사받은 기업들을 구분하여 비감사서비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실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Big4와 Non-Big4 회계법인들은 경제적 의존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피감사기업들 역시 다른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Big4 회계법인들은 해외법인들과 연계되어 있어 보다 나은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

며 능력 있는 감사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Big4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소송 발생 시 명성에 큰 해를 입을 수 있고 관련 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on-Big4 회계법인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독립성 훼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형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품질이 저해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1]은 대형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형회계법인에 비해 감사품질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2] 역시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서비스의 병행제공은 대형회계법인의 경우에만 감사품질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의 구분에 따라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Big4와 Non-Big4 회계법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표본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1까지 유가증권시장 기업들로부터 표본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업에 속하고 감사보수와 관련된 자료가 이용가능한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들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표본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들과 재무자료 결측치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제외되었다.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TS-2000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가설검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데이터가이드(DataGuide 5.0)을 통해서 수집하였

다.4) 이러한 표본수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71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OLS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련성이 대형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EM_{i,j,t(j=1,2,3,4)} = \alpha_0 + \alpha_1 NonAudit_{i,j,t(j=1,2)} + \alpha_2 Size_{i,t} + \alpha_3 CFO_{i,t} + \alpha_4 MB_{i,t} + \alpha_5 Lev_{i,t} + \alpha_6 Fore_{i,t} + \alpha_7 BigOwn_{i,t} + \alpha_8 Lag_TA_{i,t} + YD + ID + u_{i,t} \quad (1)$$

여기서,

Dependent Variables

- $EM_1(ABMJ)$: [27]이 제안한 DA의 절댓값
- $EM_2(ABMD)$: [28]이 제안한 DA의 절댓값
- $EM_3(ABPM)$: [29]가 제안한 DA의 절댓값
- $EM_4(ABBS)$: [30]이 제안한 DA의 절댓값

Variable of Interest

- NAF : 비감사보수의 자연대수
- NAR : 비감사보수 / 감사보수

Control Variables

- $Size$: 기초총자산의 자연대수
-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MB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
- Lev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 $Fore$: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
- $BigOwn$: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
- Lag_TA : 전기 총발생액/기초 자산 총계
- ID : 산업 더미
- YD : 연도 더미

4) 금융감독원은 200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연도와 과거 2개연도의 감사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보수, 감사시간, 비감사서비스 내용, 비감사보수 등이 의무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바 있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정의하고 아래의 식들을 통해 4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한다.

$$EM_1(ABM) \quad \frac{TACC_{i,t}}{Asset_{i,t-1}} = \beta_1 \frac{1}{Asset_{i,t-1}} + \bet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beta_3 \frac{PPE_{i,t}}{Asset_{i,t-1}} + v_{i,t} \quad (2)$$

$$EM_2(ABMD) \quad \frac{TACC_{i,t}}{Asset_{i,t-1}} = \beta_1 \frac{CFO_{i,t-1}}{Asset_{i,t-1}} + \beta_2 \frac{CFO_{i,t}}{Asset_{i,t-1}} + \beta_3 \frac{CFO_{i,t+1}}{Asset_{i,t-1}} + \beta_4 \frac{\Delta REV_{i,t}}{Asset_{i,t-1}} + \beta_5 \frac{PPE_{i,t}}{Asset_{i,t-1}} + v_{i,t} \quad (3)$$

$$EM_3(ABPM) \quad \frac{TACC_{i,t}}{Asset_{i,t-1}} = \beta_1 \frac{1}{Asset_{i,t-1}} + \bet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beta_3 \frac{PPE_{i,t}}{Asset_{i,t-1}} + \beta_4 ROA_{i,t-1} + v_{i,t} \quad (4)$$

$$EM_4(ABBS) \quad \frac{TACC_{i,t}}{Asset_{i,t-1}} = \beta_1 \frac{CFO_{i,t-1}}{Asset_{i,t-1}} + \beta_2 \frac{CFO_{i,t}}{Asset_{i,t-1}} + \beta_3 \frac{CFO_{i,t+1}}{Asset_{i,t-1}} + \beta_4 \frac{\Delta REV_{i,t}}{Asset_{i,t-1}} + \beta_5 \frac{PPE_{i,t}}{Asset_{i,t-1}} + \beta_6 DCFO + \beta_7 \frac{DCFO * CFO_{i,t}}{Asset_{i,t-1}} + v_{i,t} \quad (5)$$

감사품질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2), (3), (4), (5)의 식에서 산업-연도별로 추정된 비재량적 발생액 기대치를 실제 총 발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주 관심변수인 *NAF*는 비감사보수의 자연대수를, *NAR*은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식(1)에서는 대형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을 사전적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형회계법인 여부를 통제하는 *Big4* 더미변수의 포함이 불필요하다⁵⁾. 만약 *NAF/NAR*이 감사품질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면 비감사보수는 감사품을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생략변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

수들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Size*, 기업성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CFO*, 성장기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MB*, 기업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Lev*, 외국인 감시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Fore*, 소유집중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BigOwn*, 발생액 반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Lag_TA* 마지막으로 산업 및 연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ID*와 *YD*가 포함되었다. 모든 변수는 K-GAAP에 근거하여 수집하였으며 극단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하위 1% 수준에서 윈저라이징 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본 연구표본을 Big4와 Non-Big4 그룹으로 분류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Big4 회계법인의 비감사보수의 연간 평균은 1억 8천만 원 가량으로 Non-Big4 회계법인의 평균 3천 7백만 원 보다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t값 3.82).⁶⁾ 또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NAR) 역시 Big4의 평균이 67%로 46%인 Non-Big4의 그것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변수는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업규모, 영업현금흐름, 시장가치 대비 장부 가치 비율, 외국인 지분율은 Big4의 피감사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비율, 최대주주 지분율, 전기 발생액 비율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두 그룹 간에는 전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3]은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피어슨)를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Big4 그룹을 살펴보면 비감사보수(1. *NAF*)와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2. *NAR*)은 감사품질 대응치(3. 4. 5. 6.)와 모두 비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낮은 대형회계법인에

5) 선행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대형회계법인여부를 통제하였으나[31], 본 연구는 Big4와 Non-Big4 회계법인의 표본을 철저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이가 불필요하다.

6) *NAF*는 기술통계 목적으로 윈 단위로 표시되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 사용된다.

표 2.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Test										
Variable	Big4(1)				Non-Big4(2)				차이분석(1)-(2)	
	Obs	Mean (Median)	Max (Min)	S.D.	Obs	Mean (Median)	Max (Min)	S.D.	Mean(t)	Median(z)
NAF(₩)	819	177249 (47000)	8834000 (338)	576259	252	37360 (8650)	1150000 (1000)	116633	3.82***	10.71***
NAR	819	0.67 (0.31)	18.93 (0.01)	1.12	252	0.46 (0.13)	5.82 (0.01)	1.91	2.13**	6.23***
ABMJ	819	0.05 (0.03)	0.47 (0.00)	0.06	252	0.05 (0.03)	0.80 (0.00)	0.07	-1.44	-1.42
ABMDD	819	0.04 (0.03)	0.39 (0.00)	0.04	252	0.04 (0.03)	0.48 (0.00)	0.05	-0.49	-0.86
ABPM	819	0.05 (0.04)	0.37 (0.00)	0.05	252	0.06 (0.04)	0.31 (0.00)	0.05	-1.34	-1.76*
ABBS	819	0.04 (0.03)	0.41 (0.00)	0.04	252	0.04 (0.03)	0.51 (0.00)	0.05	-0.79	-0.34
Size	819	20.39 (20.14)	25.48 (17.04)	1.73	252	19.25 (19.05)	23.91 (15.99)	1.22	9.76***	9.12***
CFO	819	0.06 (0.05)	0.30 (-0.11)	0.07	252	0.04 (0.04)	0.35 (-0.30)	0.08	3.11***	3.06***
MB	819	1.12 (0.87)	4.37 (-0.10)	0.85	252	0.75 (0.60)	2.91 (-0.10)	0.61	6.57***	7.63***
Lev	819	1.17 (0.91)	4.83 (0.09)	0.96	252	1.19 (0.93)	3.97 (0.11)	0.89	-0.28	-0.86
Fore	819	0.00 (0.00)	0.09 (0.00)	0.00	252	0.00 (0.00)	0.07 (0.00)	0.00	5.53***	6.97***
BigOwn	819	0.25 (0.23)	1.00 (0.00)	0.22	252	0.27 (0.26)	0.75 (0.00)	0.21	-1.09	-1.47
Lag_TA	819	0.02 (0.02)	0.37 (-0.63)	0.08	252	0.02 (0.02)	0.25 (-0.35)	-0.02	-0.33	-0.45

Note 1 NAF(₩)는 1,000원 단위
 Note 2 t값(z값)은 평균(중위수)차이의 유의수준을 의미
 Note 3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의미
 Note 4 각 변수의 정의는 2. 연구모형 참조

대해서는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Non-Big4 그룹을 살펴보면 1. NAF와 2. NAR 모두 감사품질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Non-Big4 회계법인의 경우 비감사보수가 증가 시 감사품질도 하락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본 분석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단변량 분석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미흡하나 주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비감사보수 회귀분석

[표 4]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Big4와 Non-Big4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Panel A는 비감사보수를 주 관심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Big4 그룹의 비감사보수는 ABMJ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비유의적인 관련성이 관

표 3.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i>Big4</i>						
1.	1					
2.	0.54*** (0.00)	1				
3.	0.01 (0.87)	0.04 (0.29)	1			
4.	0.02 (0.67)	0.08 (0.25)	0.57*** (0.00)	1		
5.	0.01 (0.49)	0.01 (0.76)	0.25*** (0.00)	0.39*** (0.00)	1	
6.	0.02 (0.06)	0.08 (0.18)	0.57*** (0.00)	0.84*** (0.00)	0.36*** (0.00)	1
<i>Non-Big4</i>						
1.	1					
2.	0.44*** (0.00)	1				
3.	0.09** (0.02)	0.02* (0.07)	1			
4.	0.13** (0.03)	0.12* (0.05)	0.81*** (0.00)	1		
5.	0.18*** (0.00)	0.13* (0.04)	0.39*** (0.00)	0.53*** (0.00)	1	
6.	0.12* (0.05)	0.11* (0.07)	0.76*** (0.00)	0.83*** (0.00)	0.54*** (0.00)	1

Note 1 변수정의: 1. NAF, 2. NAR, 3. ABMJ, 4. ABMDD, 5. ABPM, 6. ABBS
 Note 2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의미
 Note 3 각 변수의 정의는 2. 연구모형 참조

표 4. Big4 vs Non-big4 회귀분석

Big4 vs Non-Big4 regression(NAF)									
Pane A: NAF		Big4				Non-Big4			
Variables	Sign	ABMJ	ABMDD	ABPM	ABBS	ABMJ	ABMDD	ABPM	ABBS
Intercept	?	0.095*** (3.35)	0.058*** (2.95)	0.049** (2.37)	0.057*** (3.01)	0.035 (0.39)	0.047 (0.71)	0.092 (1.49)	0.088 (1.34)
NAF	(+)	0.003* (1.75)	0.002 (1.63)	0.001 (0.06)	0.002 (1.51)	0.005* (1.71)	0.006** (2.16)	0.009*** (3.50)	0.006** (1.98)
Size	(-)	-0.004** (-2.46)	-0.002* (-1.72)	-0.001* (-1.82)	-0.002* (-1.90)	-0.004* (-1.85)	-0.005* (-1.80)	-0.008** (-2.73)	-0.007* (-1.95)
CFO	(-)	-0.166*** (-4.07)	-0.069** (-2.46)	-0.111*** (-3.69)	-0.075*** (-2.76)	-0.094 (-1.62)	-0.018 (-1.67)	-0.076* (-1.70)	-0.084* (-1.76)
MB	(+)	0.007** (2.56)	0.001* (1.74)	0.007*** (3.68)	0.001* (1.77)	0.033*** (3.85)	0.028*** (4.42)	0.021*** (3.49)	0.023*** (3.69)
Lev	(+)	0.006** (2.14)	0.004** (2.30)	0.004** (2.30)	0.005** (2.58)	0.008* (1.77)	0.009** (2.20)	0.004* (1.80)	0.012*** (2.78)
Fore	(-)	0.142 (0.10)	0.129 (0.48)	0.755 (0.74)	0.428 (0.46)	-0.475 (-1.28)	-0.350 (-1.29)	-0.167 (-0.66)	-0.331 (-1.23)
BigOwn	(-)	-0.013 (-1.28)	-0.002 (-0.28)	-0.001 (-0.09)	-0.001 (-0.15)	0.034 (1.44)	0.008 (0.48)	0.011 (0.64)	0.011 (0.63)
Lag_TA	(+)	0.157*** (4.42)	0.093*** (3.80)	0.016*** (2.62)	0.082*** (3.45)	0.028*** (2.52)	0.014** (2.36)	0.048* (1.72)	0.068* (1.87)
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7.53***	4.53***	5.89***	4.69***	3.72***	6.07***	5.11***	5.44***
R2		0.0694	0.0430	0.0552	0.0445	0.1096	0.1671	0.1445	0.1525
Obs		819	819	819	819	252	252	252	252
Big4 vs Non-Big4 regression(NAR)									
Panel B: NAR		Big4				Non-Big4			
Variables	Sign	ABMJ	ABMDD	ABPM	ABBS	ABMJ	ABMDD	ABPM	ABBS
Intercept	?	0.094*** (3.31)	0.057*** (2.92)	0.049** (2.37)	0.056*** (2.97)	0.052 (0.58)	0.061 (0.94)	0.117* (1.89)	0.102 (1.56)
NAR	(+)	0.003 (1.46)	0.003 (1.65)	0.001 (0.08)	0.004* (1.79)	0.003 (0.12)	0.003** (1.97)	0.003* (1.84)	0.003* (1.85)
Size	(-)	-0.003* (-1.88)	-0.001* (-1.87)	-0.001* (-1.93)	-0.001* (-1.96)	-0.002* (-1.87)	-0.002* (-1.77)	-0.004* (-1.88)	-0.005* (-1.81)
CFO	(-)	-0.170*** (-4.16)	-0.073*** (-2.62)	-0.111*** (-3.68)	-0.081*** (-2.93)	-0.091 (-1.66)	-0.007 (-1.64)	-0.065* (-1.81)	-0.075* (-1.86)
MB	(+)	0.007*** (2.76)	0.002* (1.88)	0.007*** (3.71)	0.004 (0.24)	0.035*** (4.02)	0.029*** (4.70)	0.023*** (3.85)	0.024*** (3.94)
Lev	(+)	0.005** (1.97)	0.004** (2.22)	0.005** (2.32)	0.004** (2.46)	0.008* (1.76)	0.009** (2.22)	0.005* (1.80)	0.012*** (2.76)
Fore	(-)	0.935 (0.07)	0.532 (0.56)	0.753 (0.74)	0.481 (0.52)	-0.538 (-1.46)	-0.394 (-1.46)	-0.252 (-0.99)	-0.375 (-1.40)
BigOwn	(-)	-0.013 (-1.32)	-0.002 (-0.25)	-0.001 (-0.09)	-0.001 (-0.13)	0.034 (1.41)	0.008 (0.46)	0.009 (0.57)	0.011 (0.60)
Lag_TA	(+)	0.161*** (4.52)	0.196*** (3.95)	0.016 (0.61)	0.086*** (3.61)	0.027** (2.48)	0.009** (2.32)	0.034* (1.87)	0.055* (1.84)
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 value		7.46***	5.09***	5.89***	5.20***	3.45***	5.95***	3.88***	5.22***
R2		0.0683	0.0481	0.0552	0.0490	0.1025	0.1644	0.1137	0.1472
Obs		819	819	819	819	252	252	252	252

Note 1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의미
 Note 2 각 변수의 정의는 2. 연구모형 참조

찰된 한편 Non-Big4 그룹의 비감사보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감사품질 대리변수와 강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보수 금액이 커질수록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은 큰 영향이 없으나 Non-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은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ig4 회계법인

표 5. 비감사서비스 지속성여부의 영향분석

Big4 vs Non-Big4(NAFPER)									
Panel A: NAF		Big4				Non-Big4			
Variables	Sign	ABMJ	ABMDD	ABPM	ABBS	ABMJ	ABMDD	ABPM	ABBS
Intercept	?	0.087*** (3.13)	0.056*** (2.89)	0.048** (2.27)	0.056*** (2.96)	0.123** (2.00)	0.098 (1.52)	0.119* (1.95)	0.123** (1.99)
NAF	(+)	0.004* (1.80)	0.001 (1.09)	0.001 (0.11)	0.001 (0.24)	0.004* (1.85)	0.005** (2.48)	0.009*** (3.03)	0.004* (1.85)
PER	(?)	0.003 (0.77)	0.001 (0.14)	0.006 (1.53)	0.001 (0.20)	0.009 (0.00)	0.002 (0.90)	0.004 (0.59)	0.001 (0.10)
NAFPER	(?)	0.001 (0.66)	0.001 (0.57)	0.001 (0.41)	0.001 (0.66)	0.005* (1.89)	0.005* (1.93)	0.001 (1.05)	0.004* (1.89)
Big4 vs Non-Big4 regression(NARPER)									
Panel B: NAR		Big4				Non-Big4			
Variables	Sign	ABMJ	ABMDD	ABPM	ABBS	ABMJ	ABMDD	ABPM	ABBS
Intercept	?	0.093*** (3.27)	0.067*** (3.35)	0.047** (2.22)	0.066*** (3.41)	0.123 (1.42)	0.118* (1.86)	0.154** (2.52)	0.140** (2.30)
NAR	(+)	0.003 (0.58)	0.006 (1.54)	0.003 (0.07)	0.006 (1.46)	0.005 (0.52)	0.002** (1.99)	0.002* (1.86)	0.003* (1.85)
PER	(?)	0.003 (0.42)	0.008 (1.58)	0.006 (1.15)	0.008 (1.57)	0.002 (0.24)	0.001 (0.15)	0.002 (0.03)	0.004 (0.46)
NARPER	(?)	0.004 (0.42)	0.005 (0.68)	0.001 (0.15)	0.005 (0.73)	0.007* (1.72)	0.011* (1.83)	0.001 (1.02)	0.011** (2.01)
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Obs		819	819	819	819	252	252	252	252

의 경우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소송을 청구당할 경우 명성에 큰 해가 됨은 물론 관련 비용 역시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독립성 훼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또 이 결과는 Big4 회계법인은 특정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Non-Big4 회계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은 것에 연유할 수 있다. 반대로 Non-Big4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으므로 특정 피감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Big4 회계법인에 비해 매우 높을 수 있고 이에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 역시 높을 수 있다. Panel B는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을 관심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Big4 그룹의 NAR은 감사품질 대응변수와 전반적으로 비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된 반면 Non-Big4 그룹의 NAR은 감사품질 대리변수와 전반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비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Non-Big4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추론케 하는 결과이다.

그 외 통제변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Big4 그룹의 경우 SIZE와 CFO는 감사품질 대응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MB와 LEV는 감사품질 대리변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기회가 크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이익조정을 더 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율과 최대주주지분율은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발생액은 당기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on-Big4 그룹의 경우 역시 통제변수들이 전반적으로 Big4 그룹의 그것들과 유사하였으나 유의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감사서비스 지속성여부의 영향

[32]는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여부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의 지속성이 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비감사서비스가

연속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PER*를 설정하고, *PER*와 비감사서비스 변수(*NAF*와 *NAR*)의 교차항(예: *NAF*PER*)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는 관심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PER*는 두 그룹 모두에서 감사품질 대용변수들과 비유의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서비스와 지속성의 교차항 변수는 Non-Big4 그룹에서만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서비스 여부의 지속성 자체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Non-Big4 감사인이 지속적으로 동일 피감사기업에게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V. 결론

2001년 대형회계부정사태 이후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제공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연구는 오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사였다. 미국은 2002 SOX를 통하여 두 서비스의 동시제공을 금지 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2001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특정 비감사서비스를 제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업들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 독립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수의 시도가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또 Big4와 Non-Big4 회계법인들은 경제적 의존도 등에 의하여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분명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연구는 실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와 Non-Big4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Big4와 Non-Big4 회계법인 사이에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감사보수는 Non-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는 기업들

의 감사품질과만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업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소형회계법인들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을 수 있고 비감사보수가 커질수록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Non-Big4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감사품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ig4 표본의 경우 비감사보수가 재량적 발생액 절감효과 음(-)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또 Big4 감사인의 지속적인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을 훼손한다는 증거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비감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1] 이나영, *비감사서비스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 최정호,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발생액의 질”,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3호, pp.169-200, 2011.
- [3] 이승희, *Are big4 auditors different from non-big4 auditors in terms of audit quality?: evidence from Korean firms*,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 이우재,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과 회계정보품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5] 윤호, “상장사들, 감사보수액 절반을 비감사용역 보수로 지출”, 매일경제신문, 2014.6.24.
- [6] L. E. DeAngelo,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 No.3, pp.183-199, 1981.
- [7] R. Frankel, M. Johnson, and K. Nelson,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77, pp.71-105,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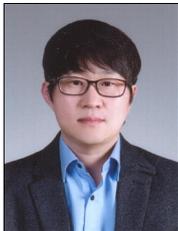
- [8] C. Caramanis and C. Lennox,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5, pp.116-138, 2008.
- [9] I. Khurana and K. Raman, "Litigation risk and the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of Big4 versus non-Big4 audits: Evidence from Anglo-American countries," *The Accounting Review*, Vol.79, No.2, pp.473-495, 2004.
- [10] J. Myers, L. Myers, and T. Omer,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78, No.3, pp.779-799, 2003.
- [11] R. Hoitash, A. Markelevich, and C. A. Barragato, "Auditor fees and audit quality," *Managerial Auditing Journal*, Vol.22, No.8, pp.761-786, 2007.
- [12] K. Reynolds and J. R. Francis, "Does size matter? The influence of large clients on office-level auditor repor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0, pp.375-400, 2001.
- [13] D. R. Deis and G. Giroux,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in the public sector," *The Accounting Review*, Vol.67, No.3, pp.462-479, 1992.
- [14] C. Dee, A. Lulseged, and T. Nowlin,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 [15] W. Kinney, Z. Palmrose, and S. Scholz, "Auditor independence, non-audit service, and restatement: Was the U.S. government righ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2, pp.561-588, 2004.
- [16] 심한택,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한국전산학회 추계발표논문집*, pp.81-150, 2005.
- [17] 김진섭, "감사인의 의견표명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32-39, 2004.
- [18] 정대길, 송인, 박연희,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 독립성",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pp.143-170, 2009.
- [19] M. DeFond, K. Rhagunandan, and K. Subramanyam, "Do Non-Audit services fe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0, pp.1247-1274, 2002.
- [20] R. Antle, E. Gordon, G. Narayanamoorthy, and L. Zhou, "The joint determination of audit fees, Non-Audit fees and abnormal accruals,"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Vol.27, pp.235-266, 2006.
- [21] 박종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pp.141-176, 2003.
- [22] 이만용, 장진호, "비감사업무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0호, pp.1-26, 2004.
- [23] 권수영, 손성규, 이은철,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pp.249-280, 2004.
- [24] 박수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5] 노경률,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6] 송혁준,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pp.543-564, 2011.
- [27] P. M. Dechow and I. D. Dichev,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Vol.77(Supplement), pp.35-59, 2002.

- [28] M. F. McNichols,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Vol.77(Supplement), pp.61-69, 2002.
- [29] S. P. Kothari, A. J. Leone, and C. E. Wasley,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9, No.1, pp.163-197, 2005.
- [30] R. Ball and L. Shivakumar, "The role of accruals in asymmetrically timely gain and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4, No.2, pp.207-242, 2006.
- [31] 임형주, "대규모기업집단의 차별적 이익조정행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385-394, 2012.
- [32] 최원석, 윤성만, "비감사서비스의 반복성과 다양성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51호, pp.293-319, 2010.

저 자 소 개

임 형 주(Hyoung-Joo Lim)

정회원



- 2009년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2013년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 2014년 ~ 현재 : 극동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지배구조, 이익조정, 보수주의, 패널데이터, CSR, IFRS